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3154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안일자 : 2022년 03월 10일
- 라. 회부일자 : 2022년 03월 16일

### 2.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무이자무보증료 등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추가로 시행코자 함.
- 나. 이에 따라 추가 보증공급을 위한 보증재원 및 무보증료 금융에 따른 보증료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2022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출연코자 하며,
- 다.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나. 주요사무 :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및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다. 추진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라. 출연의 필요성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중으로, 무보증료 금융지원에 따른 보증재원 출연을 통해 안정적 보증지원 추진
- 무보증료 금융지원에 따른 보증료 보전 재원 출연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추가 보증공급을 하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1)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나. 추가 출연의 적정성

-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어,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소재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음.
-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소상공인·폐업자(개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416억 3천만원 규모의 보증재원과 보증료 보전 재원을 증액하였음(당초 출연금 118억 6천만원<sup>2)</sup>).
  -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금융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무이자·무보증료 등 ‘4무(無) 안심금융’을 신설하고, 2조원에 대한 보증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 신용보증재원 70억원 ▶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22억 6천만원 ▶ 비대면 신용보증 구현 26억원

재원 463억 3천만원(국비 13억 3천만원 포함), 보증료 보전(0.5%) 재원 342억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브릿지보증 320억원(국비 80억원 포함)을 증액함.

-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1개월 만에 소진된 4무 안심금융의 추가 실행(3,000억)을 위해 보증재원 240억원, 보증료 보전 재원 51억원을 증액함.

### < 2021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본예산	1회 추경예산	2회 추경예산
총 계	(x-) 11,860	(x9,330) 124,390	(x9,330) 153,490
재 단 출연금	(x-) 11,860	(x1,330) 92,390	(x1,330) 121,490
재 단 출연금 (브릿지보증)	(x-) -	(x8,000) 32,000	(x8,000) 32,000

- 올해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증공급(총 2조원 규모, 4무 안심금융 1조원)을 위한 최대 운용배수(12.5배)<sup>3)</sup> 유지를 위해 659억원(신용보증 재원 485억원, 보증료 보전 174억원)을 출연했음.
- 지난해부터 이어진 융자지원 확대 조치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가속화 등으로 소비심리 위축과 영업 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신용보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한 보증한도는 15배이나, BIS(국제결제은행)가 정한 은행의 위험 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역산하면 운용배수는 최대 12.5배로 산출됨.

- 지난 2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37.5로 전월대비 6.8p가 하락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두 번째(2020년 3월 29.7)로 낮았으며<sup>4)</sup>, 소비자 심리 지수<sup>5)</sup>는 103으로 지난해 6월 최고점인 110을 기록한 이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00억원<sup>6)</sup>의 재단 출연금을 증액하여 창업·재창업의 재기도약과 빠른 사업안착을 위해 4무 안심금융을 지원할 계획임.
- 창업 후 1년 이내의 창업·재창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4무 안심 금융을 3,000억원 규모로 신설할 계획이며, 이중 1,000억원은 기존 창업자금을 활용하고 2,000억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중은행협력 자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임.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출 연 금	(x-) 75,900	(x-) 65,900	(x-) 10,000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경제주체들의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지원이 담보되어야 하며, 지난해 부터 실시한 4무 안심금융의 신청폭주로 보증수요를 충족시키기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2.02.) - ‘2022년 2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조사’

5) 한국은행이 매월 전국 2,2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산출하는 소비자동향 지수 중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에 대한 6개의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이용함.

6) 보증재원 49억원, 보증료 보전재원 51억원.

어려운 상황<sup>7)</sup>을 고려하면 4무 안심금융의 추가 실행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인정됨.

- 다만, 기존 4무 안심금융으로도 지원 가능한 창업 후 1년 이내의 창업자와 기업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4무 안심 창업·재창업 자금’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임.
- 지난해 재단에서 4무 안심금융을 지원받은 업체 중 창업기업의 비율은 9.0%, 올해 현재까지는 14.1%로 창업기업에 대한 별도의 자금 신설 없이도 원활한 보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서울신용보증재단 4무 안심금융 지원업체 중 창업기업 비율 >**

구 분		2021년 (12.31. 기준)	2022년 (3.11. 기준)
① 창업기업*	건 수	7,022	2,418
	금 액	1,617	593
② 전체	건 수	62,891	13,796
	금 액	17,905	4,199
비 율 (①/②)	건 수	11.2	17.5
	금 액	9.0	14.1

\* 창업기업 = 업력 1년 이내 (※ 업력 :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성립연월일부터 신용보증신청 접수일까지 기간으로 산정)

- 또한, 동의안에서 제시한 신용보증 재원(49억원)의 산출내역이 명확하지 못하고,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추가 보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출연의 규모와 시급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

7) 지난해 6월 9일 최초 시행한 ‘4무 안심금융’은 한 달 만에 신청 마감하였으며, 11월 추가 시행 역시 한 달 이내에 마감하였음. 올해(1.20일 시행)는 현재(3.18일 기준)까지 접수 약 65.0%, 실행 약 57.0%로 집계됨.

- 2,000억원의 신규 보증공급 증액 시 필요한 재원을 최대 운용배수로 계산하면 160억원<sup>8)</sup>이 필요하며, 추경재원 49억원은 재단의 운용배수 감소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11.47→11.41)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160억원 출연 시 운용배수는 11.27임).
- 단계적 일상회복의 영향으로 올해 말 재단의 보증잔액은 전년대비 2천 3백억원 감소한 10조 899억원, 운용배수는 11.41로 예상되어 신용보증재원(49억원)을 출연하지 않더라도<sup>9)</sup> 신규 보증공급은 가능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운용배수를 낮출 필요성은 있음<sup>10)</sup>.

### < 서울시 출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운용배수 전망 >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예상)
보증공급액	12,368	13,372	18,780	51,249	55,707	37,000
(A) 보증잔액	37,030	37,971	42,377	79,313	103,199	100,899
...						
당기순손실	346	228	397	926	788	1,188(추정)
(B) 기본재산	5,973	6,150	6,388	7,764	8,876	8,842(추정)
운용배수=(A/B)	6.20	6.17	6.63	10.22	11.63	<b>11.41</b>

8) 2,000억원(신규보증공급) / 12.5(최대운용배수) = 160억원(필요 신용보증재원)

9) 신용보증재원 49억원 미 출연시 2022년 기본재산은 8,793억원(8,842-49)으로 추정되며, 예상 운용 배수는 11.47배(100,899/8,793)로 산출됨.

10) 일반적으로 보증공급 이후 2~3년 기간에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가장 많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2년과 2013년에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가장 높았음. **지속가능한 적정 운용배수는 8~10배로 추정됨.**(리스크 요인 및 기본재산 기반의 적정 신용보증 규모 분석, 한국경제학회, 2021.7.)

- 한편, 2020년부터 코로나 관련 보증상품에 대해 최저 보증료율<sup>11)</sup>을 적용하면서 재단의 당기순손실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기본재산이 잠식될 것으로 전망되어 주요 수입원인 보증료에 대해서는 기준보증료율(1.0%) 수준의 적정한 재정보전이 필요함.

### < 최근 5년간 기본재산 현황 및 2022년 기본재산 추정 >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추정) <sup>주)</sup>
전년도 기본재산(A)	5,973	6,150	6,388	7,764	8,876
당해연도 출연금(B)	397	633	2,302	1,900	1,105
당기순손실(C)	228	397	926	788	1,163
기본재산(A+B-C)	6,150	6,388	7,764	8,876	8,819

주) 서울시 출연금(485억원) 포함하여 2022년 4무 안심금융 보증공급 1조 감안 시, 출연금 및 당기순손실을 12월 말일 기준으로 추정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태훈	02-2180-8063

11) 재단에서 보증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수립한 '보증료등의 운용기준'에 따르면, 기준 보증료율은 연 1.0%이며, 0.5%~2.0%범위에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